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뒛 때문에 기록적 폭염 왔나 기상이변도 사람 마음에 달려 있다

기상 관측 이래 111년 만에 여름 최고 기온이 깨졌다. 요즘 거의 매일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에 온 국민이 밤잠을 설치며 불쾌지수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반도가 이렇게 펄펄 끓는 데에는 나름의 기상조건이 있을 것이다.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며 기온을 상승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1994년 폭염과 완전 다른 점

올해 기온이 최고를 돌파하기 전 최고 기온 기록은 1994년이 가지고 있었다. 1994년 10대뉴스에 따르면 1904년 기상관측 이래 사상최고의 무더위가 발생했다. 대구와 밀양 지역이 39.4도, 서울 38.4도에 이르는 등 7월초부터 8월말까지 전국을 찜통기마초처럼 달궜다. 더욱이 가뭄까지 겹쳐 여름강우량은 지난 52년 이래 가장 적었고 영호남지방은 겨울가뭄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가뭄이나 물이 부족한 가운데 1월엔 낙동강, 4월엔 영산강에서 식수오염사고까지 발생했다(daum.net 1994년 10대뉴스에서 퍼옴).

기상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최근의 기온 상승이 온난화로 인한 재앙이 원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하필이면 1994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다시 말하자면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1994년 이후 24년이 흘러가는 동안 왜 최고 기온 기록이 깨지지 않았을까 의문이 든다는 말이다. 올해 이전에 이 기록이 깨졌어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라는 지적이 합리적인 답변



조희성 구세주 헌금사기 1심판결 후 성수대교 붕괴가 일어났다. 구세주께서는 당신을 1년 이상 구속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1997년 국가부도사태가 왔다. (사진: 뉴스시)

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 이상하다는 말이다.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먼저 1994년 10대뉴스를 알아보자.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앞에선 본 10대뉴스에 따르면 인면수심의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사회 전반에 인간성 회복 운동이 전개됐다고 한다. 동년 5월 19일에는 거액의 재산을 노려 부모를 살해한 박한상 사건, 9월 21일에는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 살해한 지존파 사건, 9월 27일에는 흥신 택시로 여성들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한 온보현 사건 등이 터졌다.

1) 성수대교 붕괴: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경에 제5·6번 교각 사이 상부 트러스 약 50m가 붕괴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승합차 1대와 승용차 2대 한강

으로 추락했고, 붕괴되는 지점에 걸쳐 있던 승용차 2대는 물속으로 빠졌다. 지나가던 시내버스는 튕고 도중 뒷바퀴가 붕괴 지점에 걸려다가 차체가 뒤집혀 추락한 후, 떨어진 상판에 박혀 찌그러지는 바람에 등곳길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 29명이 죽었다.

2)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부에 있던 백화점 종업원과 고객 등 1445명이 죽거나 다치는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만 502명에 달했으며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단일 사건 최대 인명피해로 기록되었으며, 세계적으로는 2013년 천여 명이 사망한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건물 붕괴사고 사상 최다 사망사고로 꼽

혔다. 재산 피해액은 2700여 억원으로 추정됐다.

왜 이러한 재앙이 연달아 발생했나?

1994년은 영생교 승리제단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난 해이다. 조희성 구세주께서 동년 1월 11일 검찰에 구속되었던 것이다.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렇다. 영생불사의 교리로 헌금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영생교 교주 조희성 피고인(63)은 8월 8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최근의 유례없는 가뭄과 폭염은 내가 감방에 갇혀 하느님과 영적 교감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조선일보 1994. 8.10)”이라고 주장했으며, “가뭄을 막아보려고 해도 구속된 상태라 막을 수 없다. 나를 1년 이상 계속 구속하면 이 나라가 망한다(중앙일보, 1994. 8.9)”고 주장하였다.

당시 기자들은 조희성 구세주의 주장을 허무맹랑한 기사로 써댔지만 조희성님이 인류를 살리러 온 구세주가 진짜라면 구세주를 구속시킨 것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더욱이 7년 형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세주에게 한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가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구세주께서는 하나님께 불쌍한 한국인을 용서해달라고 1달 이상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한국에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허락하셨다고 한다. 구세주의 한국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모두 구세주의 사랑에 보답하자.*

최근 폭염, 구도자(求道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인간사(人間事) 모두 인과법칙이 적용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인과법칙은 기상조건에까지도 적용된다. 그 예를 들어보자. 수능시험 때만 되면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하여 추워졌다. 왜 그런지 아는가?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의 마음이 불안 초조 및 긴장된 상태로 얼어붙어 이것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미쳐 기온이 얼어붙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물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마음의 에너지가 기상에 영

향을 미쳐 수능추위가 예외없이 온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1994년 폭염은 구세주를 구속시켜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구속시킨 정치적 권력과 교회권력뿐만 아니라 구속시키고도 마음에 죄송함을 못 느끼고 죄를 뽕뽕뽕 짓는 생활을 하는 나태한 승리제단 신도들의 마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폭염은 승리제단 신도들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의 마음에 무언

가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암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의식혁명의 저자 데이비드 흄킨스 박사는 선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악한 마음을 내뿜는 사람들의 영을 정화한다고 주장하였다. 흄킨스 박사는 의식 레벨 수치로 정하여 보통 사람들의 의식 레벨과 성인(聖人)들의 의식레벨을 구별하였고, 성인들이 내뿜는 의식에 의해 저차원의 의식들이 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당신이 공기

를 정화시킨다고 말씀하셨다. 온 우주에 가득 찬 마귀의 영과 오염된 공기를 한 번 바라보기만 해도 완전히 없어진다고는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새끼치는 능력이 있어서 순식간에 새끼를 쳐서 공기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기 때문에 만일 구세주께서 공기를 계속 정화시키지 않으면 인간들이 생존할 수 없는 공기가 되어 모두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승리제단 식구들과 함께 공기 정화를 시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승리제단 식구를 비롯한 모든 구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각자 수도에 매진하여 어떠한 재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39> “인내와 견뎌서 이겼다”

아무리 은혜를 간직하려고 해도 간교한 마귀는 여기를 찢었다가 저기를 찢었다가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다. 그 계속된 공격으로 백전백패, 천천천 패, 만전만패를 당하는 가운데, 도전을 하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고로 두 다리를 쪽 뺀고 울고 또 울고 통곡이 그칠 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인내심이 없는 것이다. 바로 마귀의 약점이 인내심이 없고 죄가 많을수록 인내심이 강할 것

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또 참고 견뎌서 이겨야만 그 마귀가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와 견뎌서 이겼다.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고 쓰러지며 도전하는 가운데 마귀의 지해와 총명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마귀의 계교를 알고 있는고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긴긴 세월을 두고 견디고 참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구세주 정도령 출현=인류궁극의 독립·해방·평등·구원 통일한반도[대한민국]=삼일절=광복절=제한절=개천절

공포의 대상 북핵보다 더 '뜨거운 맛'을 보이는 살인적 더위와 관련한 각종 기록이 깨지면서 실제로는 정조 18년(1794년) 이후 '224년만의 폭염'이라고 한다. 정조는 폭염 속에서 공역에 고역하는 백성들을 위해 '속이 타는 자의 가슴을 축여주고, 더위 먹은 자의 열을 식혀주는 처서단(徹暑丹) 4,000정'을 조제하게 하여 화성지역 공역소에 하사했다.

8·15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것은 비단 날씨뿐 만이 아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전반에서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불꽃 논쟁을 벌이고 있다. 북핵문제, 건국절 논란, 종교부패, 교육위기, 페미니즘, 실업문제, 저출산 고령화, 드루킹 특검 등등. 이 중 에서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거머쥔 가장 파괴력 있는 뉴스는 무엇일까? 혹은, 이들 뉴스 중에 살인적 폭염이라는 엄청난 나비효과를 일으킨 불씨가 있는 것일까?

오늘의 살인적 폭염에 대해서 소설가 김인숙은 지난 7월 중앙일보에 기고한 「김인숙의 조용한 이야기_1994년의 폭염을 돌아보며」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그해에 구속된 영생교 교주는 자기가 감옥에 있는 탓에 나라가 그렇게 더운 거라고 통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위에 잠깐 헛웃음이라도 웃게 하는 기사였을 것이다. 어이없어 웃고 나서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정 리대로 기분이 좋아지는 기사도 없지 않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 27일 프로야구 선수 박철순은 최고령 완봉승이라는 기록을 수립했다. 그 아름다운 기록으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한다. 말하자면, 아무리 더위도 삶은 계속된다.”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인 「유한준」이 당대의 수장가였던 「김광국」의

화첩 석농화원(石農講苑)에 붙인 발문에, 『지극위진에(知則爲眞愛) 애즉위진간(愛則爲眞看) 간즉축지이비도축야(看則畜之而非徒畜也).』라고 적었다. “알면 진실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제대로 보이니 그 때 보이는 것을 모은 것들은 한갓되어 모은 것들과는 다르다.”는 풀이.

과연 김인숙이라는 소설가는 「영생교 승리제단」에 대해서 자신의 삶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나 했을까? 결론적으로 영생교 교주가 주장한 “인간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 나' 라는 주체의 불확실성이 6천 년 동안 인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선악과 마귀였다. 본래 하나님으로 독립·해방·광복[인내천]하여 구원받은 비결은 '누구든지 내 몸, 내 하나님처럼 섬기어 자존심을 완전히 죽여 없애는 것'이라는 「자유율법」의 선포가 어이없이 기본 나쁜 헛소리일 뿐이고, 박철순의 완봉승에 관한 소식보다 가치 없고 감동이 없었다는 의미 아닌가?

「대한민국입시현장」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 평등하다.” 제헌헌법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수립하고...”로 적시했다. 대한민국 수립 70주년이든 100주년 이든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자유·평등·박애·영생의 국정철학으로 평화통일을 이룬 지도자가 없었다. 「드루킹」은 송하비결·격암유록 등 각종 예언서의 기록을 인용해 실승진인 정도령이 그 주인공이라고 했다. 깨우침으로 1994년의 뜨거웠던 여름을 다시 기억하라.

삼위일체 하나님 회복[인내천]=광복=자유율법=구원. 이것이 통일에 목마른 뜨거운 민심이다.*

새책이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해인

‘삶’이라는 苦海^{고해} 쉽게 건너가는 이야기 이긴자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교외 알라딘에서 판매 중
당신의 삶이 바뀔 거예요!!



독후감을 모집합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이나 하고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사례를 드립니다. 분량이 적거나 많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세주 하나님을 위한 일은 어떤 것이라도 그 의미가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지역 강촌회 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 7월 활동 성적을 발표한 결과 5지역이 지역 1등을 차지했다. 4

5지역, 전부분 1등 개인 1등 고선희 권사

지역이 지역 2등, 3지역은 지역 3등을 각각 차지했다. 구역 및 개인 성적은 다음과 같다.

- 구역 1등:** 42구역(구역장: 고선희)
2등: 46구역(구역장: 박철수)
3등: 45구역(구역장: 신순이)
- 개인 1등:** 고선희 권사
2등: 신순이 권사
3등: 박철수 수사*